광장의 해방

꽉 막혔던 광장이 해방되었다.
어제까지 큰 버스들로 빙 둘러 사람 몸하나 끼어들어갈 수 없게 막혀 있던 광장이 열렸다. 열린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시민들은 이 광장을 막고 있던 사람들을 성토하고 더 이상 광장을 막지 말라고 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닫혔던 광장이 열리고, 시민들이 모이고, 그들의 양심과 생각과 희망을 얘기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다. 한 사람의 목숨을 내어 주었으니 말이다. 아니 한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만도 여덟 분의 목숨을 내주었다. 그 중 한 사람의 목숨은, 다른 일곱 사람의 목숨과 똑같이 소중하지만, 백 사람, 천 사람, 만 사람의 목숨 만큼이 귀한 것이었다.

그 목숨은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컷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숨이 끊기지 않고 살아있기를 계속했다면 내가 살다가 죽을 시간의 수백 배, 수천 배, 혹은 수만 배의 역할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목숨이 이제 간신히 광장을 연 것이다. 수천 사람의 수천 배의 목숨을 내주고 정말로 간신히 광장을 열었다. 그 광장을 도로 내주고 그 목숨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돌려받고 싶지만 그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생명의 대가로 받은 광장을 지켜낼 책임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광장의 자유는 싸워서라도 지켜내야 한다.

오늘 광장에는 개나리가 활짝 폈다.
제 계절도 아닌 개나리가 광장을 가득 매꿨다.
거꾸로 흐르는 시절을 바꾸어 놓듯 개나리는 끝도 없이 폈다.

이는 분명 붉은 장미꽃도 아니며 흰 백합도 아니다. 바로 개나리이다.
이 개나리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가?

이제 수십만 송이 개나리 속으로 큰 강이 흐른다.
거꾸로 흐르는 물을 바로 잡을 강이 흐른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휘어질 듯, 울곧을 큰 강이 흐른다.
거대한 질풍노도의 강이 흐른다.
시대의 역류를 바로 잡을 큰 강이 흐른다.

개나리 하나하나는 큰 강의 언덕이 되고 그 언덕을 지탱하는 큰 바위가 되어 포효하는 물길을 만든다.
역류하는 흙탕물을 바로 잡고, 더럽고 썩은 쓰레기들을 쓸어 내려갈 것이다.

이제 광장 모서리마다 터진 길로 양심이 통행하고 정의가 질주하며 진정성이 가로를 이룰 것이다.
폐 속의 낮은 음이 광장을 포효한다.
뱃속 저 깊이에서 터져 나오는 깊은 소리가 도시의 골짜기 골짜기를 쩌렁거린다.
반향이 되어 나오는 소리는 다시 우리들 폐 깊숙이 파동한다.

드디어
광장에 앉아
먼저 간 분에게 작별의 인사를 적어 내려가고
그 동안 감춰 둔 속마음을 이제야 꺼낸다
도도한 민족의 긴 여정을 이야기하고
모질게 키워 온 국가를 말한다.

그 뿐이 아니다.
먼저 간 당신에게 미안함을 토로하고
송구함을 울먹이며
미어지는 가슴으로 감사를 전한다.

다시 광장에 서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주고
힘껏 싸우겠다고 다짐을 전한다.
그가 튼 물고를 우리가 이어 받아
기필코 완성하겠노라

광장에서
뻗쳐 나온 가지가지 길에서
그가 던진 영혼을
그가 살린 진실을
그가 만든 역사를
세우겠노라
저 삼각과 북악 앞에서 맹세한다.

저 바스티유에서 이룩했던 프랑스 인민들처럼
자유와 혁명을 기념하며
세계의 인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Place de la Seoul'를 세우자고.

우리에게 큰 광장을 선물한 대통령에 감사한다.
그리고 잘 가시우 작별한다.

2009. 5. 29.
문화유산연대
김란기